

■ 1·11 부동산 제도 개편 Q&A

민간아파트 분양가 20% 인하 효과

정부는 11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직후 이와 관련된 질의 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20%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건설업체의 공급 부족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다가 분양원가 공개로 선회한 이유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분양원가 공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 - 민간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한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해도 주택공급 차질 없다” 담보대출 1건으로 줄여 대출증가세 차단

▲논란이 많은 택지비, 가산비 내역이 상세하게 검증·공개됨으로써 부분별 분양가 부풀리기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도 부분적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이 실제로 분양가를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11·15대책에서 택지공급가격 인

하,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채권상환액 하향조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에서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 이번에 발표된 민간택지 원가공개 방안을 실질적인 원가공개로 볼 수 있는지?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공인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검증·공개하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가산비의 상세내역을 사업장별로 철저히 검증·공개하게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중앙정부가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시·군·구

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5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 9월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가?

▲9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은 예외없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이라도 하더라도 법 시행일 3개월뒤인 12월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 동일차주가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그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한 배경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주택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손우철의 행복한 **부**자되기

자녀에게 '고기잡는 법' 가르쳐라

조기 금융교육 삶을 바꾼다

소득과 지출 등 경제흐름 알게해야
부모, 계획성있는 소비행태 보여주길

‘닭은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 무드의 교훈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자녀에게 무작정 지원만 해주려 한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녀의 금융교육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을 뿐더러 막상 교육을 시키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렸을 때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아 본 부모가 드물기 때문이며,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번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심각성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글을 모르면 단지 생활이 불편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국민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할 때 저축하는 방법(미국 85%, 한국 76%)과 현명하게 돈 쓰는 방법(미국 89%, 한국 96%) 등 기초적인 금융교육 항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미국이 71%인 반면 우리나라는 33%에 그치고 있고, 가정의 재무계획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부모는 미국이 61%인 반면 우리나라는 36%에 그쳤다.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해 부모가 경제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가능하다. 자녀를 가정의 재무계획에 동참시킨다면 가정의 재무목표와 지출통제, 투자전략과 같은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배운다는 사실

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소비활동에 대해 계획적이지 않거나 무신경할 경우 자녀 역시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 중 어떤 곳에 지출이 발생하든 자녀에게 설명하고, 지출항목을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 소비에 대한 예산을 작성함으로써 현명한 소비와 자기절제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자본의 시대, 금융의 시대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금융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면 차츰 자녀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돈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주체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팀장)

잠자는 보험금 작년 5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1천56만건에 5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 회계연도말 2천754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당 휴면 보험금은 평균 4만8천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천건(2천172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나 은행,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란을 이용해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재가복지 서비스차량 420대 전달 차장으로 '나누면 행복'이라는 글씨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재가복지서비스차량 420대를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면서 차장으로 '나누면 행복'이라는 글씨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도 보행자 통로 생긴다

올해부터 읍·면·동 설치
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

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해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통행요구를 유발하는 시설인 화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는 시가지, 시외교, 도시·마을간 연결구간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올해 착공되는 국도가 시가지지를 통과할 경우 보행 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보행자 통로가 없는 기존 국도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인 보강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은 총재 “집값 안심할 수준 아니다”

콜금리 4.5% 동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여섯 번째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콜금리 운용 목표를 연 4.50%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8~9월과 비교했을 때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아파트 값이 또 한번 뛰었다는

점”이라며 “아파트값 부담이 현재 안심해도 될 상황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빨랐으며 감속이 충분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 집값 잡기와 유동성 흡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와 여신 규제 등 금리 상승 등의 효과가 1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금감원 민원처리 만족도 매우 낮다”

현대리서치 研 만족도 조사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하반기 민원인 757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7.4점을 얻어 작년 상반기 조사 때보다 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인터넷 민원의 만족도는 57.4점, 서류 민원의 만족도는 55.7점이었다. 민원 종류별 만족도를 보면 질의·건의는 61.5점, 이의 신청은 52.7점, 진정은 56.4점이었다. 금감원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만족도 순위를 발표하고 업무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민원의 발생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한 자료를 관련 부서와 금융회사에 제공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발생을 억제하는 민원 주보도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급아파트·주상복합 전기요금 대폭 오른다

3자녀 이상 가구·빈곤층은 감면

공통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되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대신 3자녀 이상 가구와 빈곤층,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연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세부 조정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은 단일 계약(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해 주택용 고압요금 1개 요금 적용)과 종합계약(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중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 전체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 구간요금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초 과일·배추값 하락세

선물 수요 급감... 사과 한상자 1주일새 1,400원 내리

연말연시 선물용 수요가 줄면서 과일 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배추값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후지사과 16개(5kg)들이 한상자 가격이 1만8천500원으로 지난주보다 1천400원에 저렴하게 거래됐다. 배도 12개(7.5kg)들이 신고배 1상자 가격이 전주 대비 600원 내리 2만9천900원으로 연초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갈굴(7.5

kg) 가격이 저장갈굴이 출하되면서 2천 원 내리 1만6천900원에 팔렸으며 단감(1kg)은 지난주와 같은 3천500원을 기록했다. 배추의 경우 반입물량 증가로 1포기당 전주보다 200원 싼 950원에 거래되는 등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대파 가격(1단)은 신안과 진도 등지 생산분이 출하되면서 900원으로 전주보다 300원 하락했으며 반입량이 늘어난 상추(100g)도 230원 내리 400원에 팔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기은신용정보(광주지점)	(채권추심) 관리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3	062-226-7191
(하늘아이)	초등학교 특기적성검사 모집 (독서논술/논리셈수학)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6	032-234-2222
디에스글로벌	생산직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7	062-956-9440
(HRN)	(KTF직영본점) 정규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17	062-529-2671
KBSJOB	광주 금융생명 대표전화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9	02-518-3250
(탑스)	2007년도 경력 및 신입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9	062-971-7799
(나경인터네셔널)	무동파코호텔 주임급 구매담당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226-0011
(메니패스토포푸드시스템)	2007년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19-317-6451
(뉴욕이엘아이외국어학원)	제1기 공채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22	062-417-0500
양우건설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1년	1000~1200	01/22	011-748-4840
(웹이즈)	비보사랑-물류센터 관리직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26	1544-8885
뉴바이오(주)	생산관리 직원 및 연구소 직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973-6995
(에피플러스)	반도체 생산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6	062-605-9738
대성직업전문학교	조경 직업훈련교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26	062-513-5000

(광주직접이 512-6210 제공)

‘야마하 인프레스 460’ 드라이버 출시



야마하 골프는 올해 신제품 ‘야마하 인프레스 460’ 드라이버(사진)를 출시했다. 야마하 골프가 개발한 이 드라이버는 반발계수 0.816 이상으로 일반 드라이버보다 4배나 크다. 특히 고반발면이 페이스 전체로 확장되어 디에 맞든지 비거리 편차가 비슷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 야마하 인프레스는 헤드가 400cc가 넘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미스샷에서 불이 휘는 단점을 극복했으며, 460cc의 대형 헤드사이즈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방향성 문제를 해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